

“역경작업 원시불교 자료 확보 필요” “진언 의역보다 소리나는대로 표기”

조계종교육원 불학연 ‘역경편찬 세미나’

경전 번역상에 나타나는 문제와 발전과제에 관한 역경세미나가 종단차원으로는 처음 열린 가운데 역경사업 전개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스님)가 2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역경사업 전개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팔리어본 원시 경전의 번역상의 문제”를 발표한 최봉수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팔리어본 원시경전 번역상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보다 충실한 팔리어본 경전의 해석을 위해서는 필연적 관계를 맺는 다른 원시불교 자료들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 우리나라는 법본 아함경 단편의 경우 완벽히 입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자료의 충실한 수집부터 전제되어야 번역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역 밀교경계 번역상의 문제 연구”에서 김영덕 교수(위덕대)는 “인도에서 건너온 진언(眞言·다라니)이 중국에서 한역될 당시 번역자의 주관 외에는 일정한 규칙이 적용된 바가 없다”며 “진언의 경우 의역보다는 그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주장했다.

번역상의 문제연구”에서 중국 역경사에서 보여지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완벽한 비간 교정본 만들기 △주석 문헌에 바탕한 철저한 번역 △공동작업에 의한 번역 등을 제안했다.

김씨는 “범어원전 사본과 티베트어 원전, 한역 원전과의 상호 대조는 산실된 범어 원전의 복원과 철저한 번역을 위해 불가결하다”며 “상호대조를 통한 비간 교정본과 주석 문헌에 바탕한 전문적이고 통일성있는 공동 번역작업은 앞으로 역경사업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역 장경의 구역과 신역 용어의 비교’에서 권오민 교수(경상대)는 구역(闍維論)과 신역(新譯)의 역어를 중심으로 번역상에 나타난 구역과 신역의 용어를 비교했다.

김정은 기자



주최	주제	일시·장소
한국어사학회 불교문화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려대정경연구소 한국종교학회	‘수륙재 불화’ 등 고학역시대의 불교의 진로 불교와 인터넷 사상철학과 불교사상의 만남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종교문화에서 의례가 차지하는 의의	3/28·국립중앙박물관 4/23·동국대 4/25·불일문화관 4/25·정신문화연구원 대회의실 5/9·미정 5/9·서울대
교수불자연합회	국난극복을 위한 불교의 지비실천 방안(창립 10주년 기념)	5/16·조계사
열불민일회 한국불교학회 한국종교인문학회의 한국종교교육학회	정토사상의 현대적 의미 선명상승(禪淨相承)의 대응요제 상속한 민주 시민의식과 종교 근대종교의 개혁사상	5-8월·전국순회 6월 중순·동국대 6/11-12·프레스센터 6월 예정

봉축 학술회·세미나 ‘풍성’

IMF 영향으로 불교 학술단체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봉축관련 학술연구 발표회와 세미나가 유난히 풍성하다.

또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은 사회 인적구성원의 학력이 점차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위상을 점진해 본다는 취지로 ‘고학역시대의 불교의 진로’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은 ‘불교와 인터넷’을 주제로,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우리나라 4대 종교문화에서 의례가 차지하는 의의를 연구발표하고, 고려대정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는 ‘공(空)과 연기(緣起)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5회에 걸친 학술세미나를 계획하는 등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다채로운 학술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美종교학회에 ‘원효학 패널’ 설치

국제원효학회, 11월 정기발표회에서 ‘원효사상’ 소개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는 최근 미국종교학회(AAR)로부터 원효학 연구분야 설치요청이 수락됨에 따라 미국종교학회 정기발표회에서 원효스님의 사상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게됐다.

국제원효학회는 4월초까지 패널발표신청을 접수받고 ‘원효전서’ 영역자를 중심으로 원효스님의 텍스트 발표자 5명과 철학·역사적 연구발표자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한국본부 참석자로는 송석구 동국대 총장이 ‘원효사상의 종교적 의미’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김용표 교수가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의 반야경 해석학’ 패널발표를 한다.

(정)

“이종욱스님 친일승 아니다”

조계종 불학연 조사 ‘친일 혐의는 오류’

‘친일승려’와 ‘독립유공자’라는 양극단의 평가 속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종욱 스님(1884~1969)에 대해 “이종욱 스님을 친일 혐의자로 보는 것은 당시 불교계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라는 종합 조사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극운동 행정 △일정사 주지취임 등 중무 활동 △중앙총무 활동 △일제협력 활동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조사연구를 진행한 심원스님(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은 “이종욱 스님의 친일 행적 오해는 주로 1930년대 이후 종단 중앙활동이 대상되고 있으나, 이것은 조선불교의 전통 수호와 총본산 건설, 즉 종단재건의 대서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책상 중무 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친일 혐의를 받고 있으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친일 활동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티베트독립에 中 우호태도 요청

달라이라마, 8일 티베트행 기념행사서

티베트 법왕 달라이 라마는 8일 ‘티베트행 39주년’을 맞아 인도 다람살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 중국이 티베트독립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인들은 부처님의 중도(中道)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며 “히말라야를 기점으로한 티베트의 자치가 선행되고 결국 독립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했다.

150,000字의 名蹟을 集大成한 完璧한 大字典

국내 최고의 서예대가 여초 김응현 선생의 체본을 수록한 서예법첩

주문및문의처: 이화문화출판사 출판영업부 T.(02)730-6685~6 F.(02)735-9366

書道大字典

文字學·篆刻·史學·建築學
·畫學의 必須 字典

書藝의 敎本

4×6배판 2890쪽 최고급양장 상 하권 각 100,000원

正統 書藝의 研究에!!
格調 높은 글을 쓰는데!
集字를 하는데 필수 字典!

東方書範 (1집) 1~10

구입및문의처
이화문화출판사 출판영업부
T.(02)730-6685~6
F.(02)735-9366

여초김응현 편저/
국배판/
제1집 전10권/
값250,000원

國內 最高의 書藝大家 如初 金膺顯 선생의 체본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제1집(1권~10권의 내용)

第一卷 正音(國文)(版本體 宮體)	第六卷 右軍集字(魏書)(上)(曹魏正書)
第二卷 石鼓文 泰山刻石 琅琊臺刻石	第七卷 右軍集字(魏書)(下)(曹魏正書)
第三卷 鍾繇(張芝)	第八卷 隸書 吳郡(曹魏) 隸書(曹魏)
第四卷 漢碑 乙瑛碑 石門頌 石鼓文	第九卷 書 隸(上)(曹魏)
第五卷 張猛龍碑 張猛龍碑	第十卷 書 隸(下)(曹魏)

東方書範 (2집) 11~20

특별보너스
上記 책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漢韓大辭典(₩120,000)을 증정하겠습니다.

여초김응현 편저/
국배판/
제2집 전10권/
값250,000원

1集에 이은 最高의 書藝 敎本 광개토태왕비를 비롯한 각종 비문 收錄!!

제2집(11권~20권의 내용)

第十一卷 歐陽通 皇甫謐(晉) 裴君	第十六卷 羅綱銘 孟康銘(晉) 劉琨銘
第十二卷 石門頌 石鼓文(石鼓) 石鼓文(石鼓)	第十七卷 杜牧銘 蔡文徵 蔡文徵
第十三卷 漢碑(石鼓) 漢碑(石鼓)	第十八卷 李元宗(高麗)
第十四卷 漢碑(石鼓) 漢碑(石鼓)	第十九卷 急就(上)(高麗)
第十五卷 韓文公(高麗)	第二十卷 急就(下)(高麗)

如初金膺顯手墨

如物金膺顯 著18집판/150배트지/울관라/최고급양장케이스/각권300쪽의/평가 400,000원

詩·書에 문혀 살아오신 如初先生님의 七十餘 星霜이 이 書集에 담겨있다.

원칙한 作品解説! 울관라로 印刷하여 作品의 生動함을 恣意 높이고 大規模 作品만도 數十點에 달해 國內最高의 超大型 作品集이다.

주요내용
1冊 天 61년 국전출품작부터 난대순으로 나열 3冊 人 木 도지 비문, 진언, 조연, 안보 등
2冊 地 95년 작품까지 모두 나열하였음 4冊 釋文 모든 작품을 쉽게 읽게 하였습니다.